



국립현대미술관 <판화, 판화, 판화>전 전시전경

식탁보에 번진 얼룩...이런 것도 판화다

작사각형 테이블에 흰 식탁보가 덮였다. 테이블 위에는 갈색 꽃무늬 걸레와 유리컵 하나가 놓여있다. 식탁보는 젖은 걸레에서 나온 듯한 물로 누렇게 얼룩졌다. 컵 밑에도 동그란 유리컵 자국이 찍혔다. 한국 전위미술 선구자로 불리는 김구림(84)의 1974년작 '걸레'다. 식탁보에 실크스크린으로 걸레에서 번진 것처럼 얼룩을 낸 파격적인 작품이다. 동아국제판화비엔날레에 출품했으나 판화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시가 거부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판화, 판화, 판화'전은 이 논쟁적인 작품을 비롯해 국내 현대판화 작가 60여명의 100여점을 소개한다. 전시는 판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판화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이영애, 내 날개 아래 바람 1, 1995, 120.5x171cm, 애쿼틴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국내 판화 거장들의 대표작을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적 전시가 아니다. 김상구, 김형대, 오윤, 황규백 등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의 최근작을 만날 수 있다.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걸레'처럼 "이런 것도 판화인가"라는 반응이 나올만한 작품들로 판화의 다양성과 실험성, 판화만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준다.

인쇄문화와 판화의 관계를 나타낸 '책방', 사회적 이슈와 판화의 만남을 다룬 '거리', 다양한 판화 기법을 소개하는 '작업실', 동시대 미술 장르로 확장된 판화를 다룬 '플랫폼' 등 주제별로 전시장을 구성했다. 푸른색 스테인리스스틸 판에 이미지를 찍은 송번수의 '판토마임Ⅲ' (1972), 세필로 그린 듯 낙엽을 정밀하게 묘사한 이영애 '내 날개 아래 바람' (1995) 등 다양한 기법 작품을 조명한다.

강행복의 '화엄' (2019)은 꽃과 나무, 구름, 길 등 주변 풍경을 목판화로 찍어낸 뒤 바느질로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 돌에 스텐실 기법으로 '짱돌'이라는 글자를 새긴 윤동천 '분노' (2017), 판화로 복제한 인물들을 바닥에 줄 세운 김영훈 '무엇이 진실인가?' (2020) 등 판화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도 나왔다.

전시일정(장소) 8월 16일까지(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관람료 온라인 사전예약제 실시 기간 무료

☎ 02-2188-0600

초록빛 제주 자연으로의 초대

틈나는 대로 산과 강을 찾아다니던 작가는 약 20년 전 아예 제주도에 터를 잡았다. 자연은 어느새 그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김보희 개인전 'Towards'는 제주의 자연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안개 낀 새벽부터 햇살 따사로운 낮, 붉은 노을 지는 저녁까지 다채로운 제주 풍경을 나누고픈 마음으로 캔버스에 옮겼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숲, 작은 꽃과 씨앗, 반려견 등 그림은 모두 작가가 아끼는 것들로 가득하다.

전시는 미공개작 36점을 포함한 회화 53점과 드로잉 2점 등 총 55점을 소개한다.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가가 정원에서 바라본 풍경을 담은 'The Terrace'가 맞이한다. 8개 캔버스를 연결해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한 대작이다.

바다가 보이는 나무 테라스에는 테이블과 의자, 반려견, 화분이 있고, 그 앞으로 야자수가 늘어섰다. 관객도 테라스에 서서 풍경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가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린 바다 풍경 시리즈도 한층 장대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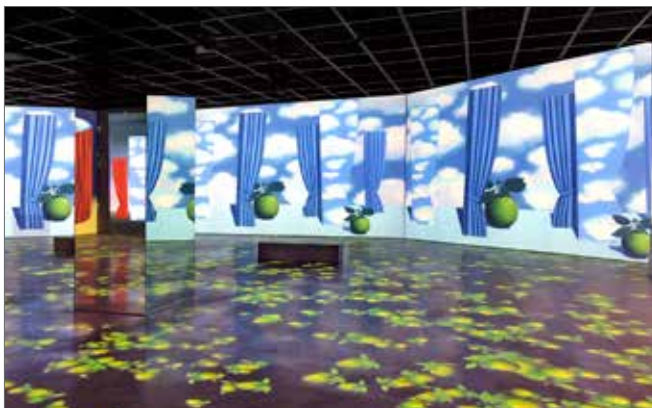
3층에 걸린 'In Between'(2019)은 각각 하늘과 바다를 품은 두 개 캔버스를 이어붙여 가로·세로 4m에 달하는 대작이다. 색면추상을 연상케 하는 작품에는 옅은 푸른빛 하늘, 짙은 청색 바다가 수평선을 사이에 두고 공존한다.

작가는 동양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채색한다. 사실적인 묘사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추상적 배경이 조화를 이룬다.



김보희, The Terrace, 2019, Color on canvas, 324x520cm(8 pieces, 162x130cm)

전시일정(장소) 7월 12일까지(금호미술관)
관람료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어린이 2천원
☎ 02-720-5114



인사 센트럴 뮤지엄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전 전시전경

멀티미디어로 체험하는 르네 마그리트 예술세계

풋사과로 얼굴을 가린 중절모 쓴 남자,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한 중절모 신사들, 미술에 큰 관심이 없는 이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이미지다. 벨기에 출신 초현실주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1898~1967) 작품들이다.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재해석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꾸민 체험형 전시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은 고화질 이미지, 영상,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마그리트 생애와 작품세계를 경험하도록 했다.

이탈리아에서 '인사이드 마그리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를 들여와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했다. 벽면과 바닥을 마그리트 작품 영상으로 채운 대형 공간 등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매체로 마그리트를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 전시다. 대형 사과와 담배 파이프 같은 마그리트 작품 속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꾸민 포토존 등은 소셜미디어(SNS)를 애용하는 관람객이 좋아할 만하다.

르네 마그리트는 담배 파이프, 돌, 중절모 등 일상 속 소재로 상식을 깨고 사고의 일탈을 유도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대표작으로 '괘감의 원작', '연인', '이미지의 배반', '빛의 제국', '골콩드', '사람의 아들' 등이 있다.

전시일정(장소) 9월 13일까지(인사 센트럴 뮤지엄)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3천원, 어린이 1만1천원
☎ 02-325-1077



다르면서 똑 닮은 모녀가 화해하는 법 '초미의 관심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과 그 일대. 흔히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외국인, 외국 상품, 외국 문화의 집결지이자 온갖 젊은 이들을 불러모으는 번화가. 최근엔 이 지역의 클럽을 찾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이름만으로도 상징적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이태원에서 서로 너무 다르지만, 똑 닮은 모녀가 하루 동안 유쾌한 추격전을 펼친다. 래퍼 치타(본명 김은영)가 주연을 맡고 그의 연인인 배우 겸 감독 남연우가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초미의 관심사' 이야기다.

이태원에서 가수 '블루'로 활동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순덕은 어느 날 아침 불청객의 방문을 받는다. 10년째 따로 사는 엄마가 들이닥친 것. 순덕과 함께 살고 있던 고등학생 막내딸 유리가 엄마의 가셋세와 순덕의 비상금을 들고 도망간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단 하루 동안 손을 잡고 유리를 쫓는다. 극과 극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의 공동 작전이 순탄할 리 없고 유리의 행방은 점점 오리무중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마음속의 웅어리들도 수면 위로 드러난다.

영화는 두 여성의 버디 영화이자 로드무비다. 게다가 두 여성은 애증으로 똬똬 뭉친 모녀 관계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영화 제목의 뜻은 결말에 가서야 밝혀진다. 그러나 이 영화가 '뻔한' 모녀의 화해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은 이태원이

라는 지역의 특성이 이 영화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거리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수미쌍관 형식의 영화는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최대한 담아낸다. 외국인의 모습을 했지만, 한국인인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 성 소수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결국 영화는 가족 이야기의 외피를 입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반대로 사회를 통해 그 근본이 되는 가족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다. 극과 극으로 보이는 엄마와 딸이 화해했듯 서로 너무 달라 보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조민수와 김은영의 모녀 호흡도 나쁘지 않다. 조민수는 철없고 오지랖 넓지만 미워할 수 없는 엄마를 연기하면서 극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김은영은 무뚝뚝한 딸을 연기하면서 첫 연기 도전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적재적소에서 활약하는 조연들도 영화에 빠져서는 안 될 양념이다.

감독 남연우
출연 조민수, 김은영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5월 27일

그집

할리우드산 공포 영화와는 달리 독특한 분위기와 오싹함을 자아내는 스페인의 공포 영화다. 1976년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새 출발을 꿈꾸며 도시로 이주한 6명의 가족이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새집에서 겪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그린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 안에서 공포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컨저링' 등을 떠올리게 한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저절로 열리거나 재봉틀이 혼자 돌아가는 등 관객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공포 영화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 오랜 독재 정치로 진통을 겪은 1970년대 스페인의 사회상도 투영돼 있다.



감독 알베르토 핀토

출연 베고냐 바르가스, 이반 마르코스, 베아 세구라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5월 27일

안녕, 미누

한국 사람보다 더 맛깔나게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네팔사람 미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스무 살에 한국에 와 식당,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산 지 어느덧 18년. 그러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그는 2009년 강제 추방당했다. 영화는 추방된 지 10년 가까이 흐른 후 네팔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누의 모습을 담담하게 카메라에 담아냈다. 그는 사업가로도 성공했지만 젊은 시절을 보냈던 한국을 그리워한다. 마침내 이 영화가 2018년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한국 땅을 밟았던 미누는 한 달 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감독 지혜원

출연 미노드 목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5월 27일



슈퍼스타 두루

시골에 살던 닭이 슈퍼스타가 된다는 내용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알을 낳지 못해 놀림받던 암탉 두루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봐 준 이사벨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할머니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어버리고 두루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할머니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두루는 서커스단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단숨에 슈퍼스타가 된다. 하지만 그를 노리는 서커스단 단장의 음모가 두루를 위협한다.

감독 빅토르 모니고테, 에두아르도 곤델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6월 4일

조금씩, 천천히 안녕

가족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린 일본 영화다. 나오키상을 받은 나카지마 교코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7년 동안 조금씩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다. 아버지와 이별을 준비하며 가족들도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간다. '행복 목욕탕'(2016)을 연출한 나가노 료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아이오이 유우가 두 딸 중 한 명인 후미를 연기했다.

감독 나가노 료타

출연 아이오이 유우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5월 27일



흑인 여성 힙합 가수, '황금시대' 맞다

도자캣-니키 미나즈, 빌보드 점령

여성 래퍼들의 노래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정상을 차지하는 등 최근 팝 시장에서 여성 힙합 뮤지션 강세가 두드러지며 여성 래퍼의 '황금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빌보드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차트에 따르면 세계 최정상급 래퍼 중 하나인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에 참여한 미국 래퍼 도자 캣의 '세이 소'(Say So)가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차트에서 여성 래퍼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정상을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빌보드는 전했다. 장르 구분 없이 모든 여성 가수 간 협업곡으로 범위를 넓혀도, '핫 100' 1위에 오른 것은 이 곡이 여섯번째다. 아울러 '세이 소'는 도자 캣과 니키 미나즈 모두에게 데뷔 후 첫 '핫 100' 1위 곡이다.

니키 미나즈는 미국에서 여성 래퍼의 황금시대를 연 첫 주자다. 인구 130만명을 겨우 넘기는 카리브해 국가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태어나 세계 힙합계를 주름잡는 '랩의 대모'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빌보드 역사상 '핫 100'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여성 아티스트지만, '세이 소' 이전까지 1위 곡은 없었다. 자유자재로 악센트와 목

소리를 바꾸며 빠른 플로(flow)로 랩을 하는 게 특징이다.

'아나콘다'는 니키 미나즈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봐야 하는 노래 중 하나다. '핫 100' 2위까지 기록한 이 곡은 그래미어워즈 '베스트 랩 송'(Best Rap Song)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리아나 그란데, 제시 제이와 함께 부른 '뱅 뱅'(Bang Bang), '슈퍼 바스'(Super Bass), '스타십스'(Starships)가 니키 미나즈를 대표하는 곡이다.

'랩의 대모' 도움 덕분에 1995년생인 도자 캣이 빠르게 '핫 100' 정상을 찍었는지 모른다. 그는 10대 시절 사운드클라우드에 자신이 만든 곡을 올리며 음악을 시작했다.

정식 스튜디오 데뷔 앨범이 2018년에 나왔으니, 데뷔한 지 약 2년 만에 팝을 대표하는 음악 차트가 인정한 최고 히트곡을 보유한 셈이 됐다. 도자 캣 데뷔 앨범 '핫 핑크'(Hot Pink)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최고 9위까지 오른 바 있다.

'세이 소'는 지난해 11월 발매된 도자 캣 정규 2집 타이틀곡 중 하나였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춤추는 동영상을 올리는 '세이소챌린지'(saysochalleng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



카디비

[EPA=연합뉴스]



리조

[AP=연합뉴스]



메건 더 스텔리언

[EPA=연합뉴스]

며 인기를 높였다. 이후 니키 미나즈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흥행에 날개를 달았고, 지난주보다 다섯 계단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니키 미나즈와 도자 캣이 ‘핫 100’ 1위를 기록한 이 주에, 2위 또한 여성 힙합 뮤지션이 차지했다. 비욘세가 피쳐링에 참여한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텔리언의 ‘새비지’(Savage) 리믹스 버전이다. 스텔리언이 지난 3월 발매한 이 곡은 팝스타 비욘세 목소리를 더한 버전이 히트에 가속도를 붙이며 이후 차트에서 4위에 이어 2위까지 올랐다.

‘핫 100’ 7주간 1위 리조·여성 유일 그래미 랩 부문 수상 카디비

최근 활약이 두드러지는 여성 래퍼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래퍼 겸 리듬 앤드 블루스(R&B) 가수 리조는 ‘트루스 허츠’(Truth Hurts)가 발매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SNS에서 입소문을 타, 여성 래퍼로는 최장기간인 7주간 ‘핫 100’에서 1위를 지켰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그래미어워즈에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8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 이 중 3개 부문 트로피를 받았다.

리조는 사회가 여성 가수에게 요구하는 ‘마른 몸매’를 지니지 않았지만 자신의 외모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성 소수자 지지 목소리를 내는 등 소신 있는 행보를 보였다. 힙합·팝 장르에 리듬앤드블루스(R&B) 요소를 가미한 노래에 이런 메시지를 녹여 인기를 얻고 있다.

카디비 역시 미국 힙합계에서 빠질 수 없는 뮤지션이다. 2018년 데뷔 앨범 ‘인베이전 오브 프라이버시’(Invasion of Privacy)를 ‘빌보드 200’ 1위에 올리며 화려하게 신고식을 했고, 여성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그래미어워즈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격적인 플로와 솔직한 가사가 특징인 그는 힙합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한 레드 카펫 행사에서 ‘대선 배’인 니키 미나즈에게 신발을 던져 싸움이 난 일화로도 유명하다. 이렇듯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선전이 이어지자 미국 팝 시장에 여성 래퍼의 ‘황금시대’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다른 음악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힙합, 랩, 그라임(힙합, 댄스홀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영국 음악 장르)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공간이었지만 마침내 상황이 변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지원하는 성공적 여성 래퍼들이 다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며 여성 래퍼 간 결속력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메건 더 스텔리언은 여성의 시각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랩을 한다”며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10주년 맞은 뮤지컬 '모차르트!' 김준수·박강현·박은태 3색 무대

뮤지컬 '모차르트!' 10주년 공연이 열린다. 2010년 한국 초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연일 매진시켰고, 그해 각종 뮤지컬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한 작품이다.

'엘리자벳',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 등을 합작한 뮤지컬 콤비 미하엘 쿤체 극작가와 실베스터 르베이 작곡가의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천재 음악가의 인간적 고뇌,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다양한 주변 인물과 관계 속에서 드라마로 풀어낸다. 뛰어난 극본, 클래식하면서도 대중적인 넘버(노래), 화려한 무대미술평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2016년 이후 약 4년 만에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모차르트!'에는 김준수·박강현·박은태가 '모차르트'役に 캐스팅됐다. 초연 당시 앙상블에서 첫 주연으로까지 발탁되며 드라마틱한 무대를 선사한 박은태는 이번에 다섯 번째 '모차르트'를 연기한다. 김준수는 2010년 이 작품으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해 최고 배우로 성장했고, 박강현은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배우로 낙점됐다.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인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 베버'역에는 '마리 퀴리' 등을 통해 '여성 원톱 서사 장인'으로 각인된 김소향을 비롯해 '마리 앙투아네트'의 김연지, '보디가드'의 해나가 캐스팅됐다.

모차르트를 신이 내린 숙제라 여기며 속박하는 '콜로레도 대주교'는 민영기·손준호가, 후원자 '발트슈테텐 남작 부인'은 '뮤지컬 여제' 신영숙과 김소현이 연기한다.

이외에도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역은 윤영석·홍경수, 누나 '난넬 모차르트'역은 전수미·배다해, 콘스탄체 어머니 '체칠리아 베버'역은 김영주·주아, '엠마누엘 쉬카네더'역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은 신인선과 문성혁, '아르코 백작'역은 이상준이 맡는다.

이전 세 차례 공연을 이끈 유희성 연출이 예술감독을, 2014년 공연을 진두지휘한 아드리안 오스몬드가 연출을 맡고 김문정 음악감독, 서숙진 무대 디자이너, 구윤영 조명 디자이너, 송승규 영상 디자이너가 참여해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6월 11일~8월 9일(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8만~14만원
☎ 02-399-1000

허난설헌 삶 다룬 창작 뮤지컬 '난설'

조선 중기 천재 시인

허난설헌(1563~1589)의 시와 삶을
그린 창작 뮤지컬 '난설'이 1년여 만에
돌아온다.

조선 시대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이었지만 스스로
'난설헌'(蘭雪軒)이라는 호를 짓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허초희의 삶을
주제로 '허난설헌'의 유려한 시 세계를
국악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으로 되살린 작품이다.

지난해 초연에서 허초희의
지음(知音)인 이달과 허균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대상과 그 안에서 구축된
허난설헌의 시 세계를 표현하며
호평을 받았다.

재연 무대 '허초희' 역에는 안유진, 정인지, 김려원 배우가 캐스팅됐다. '허균'은
최호승·최석진·유현석이, 스승 '이달'은 정성일·양승리·안재영이 연기한다.

허난설헌의 시와 산문을 활용한 옥경선 작가의 유려한 노랫말에 다미로 작곡가가 국악
느낌의 선율을 더한다. 초연에서 합을 맞춘 이기쁨 연출, 류정아 안무 감독이 다시 뭉쳤다.



공연일정(장소) 6월 30일~9월 6일(대학로 콘텐츠그라운드)
티켓 2만2천~5만5천원
☎ 02-747-2232



공연일정(장소) 7월 5일까지(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티켓 4만~5만5천원
☎ 02-766-6007

90분간의 끊임없는 대화...2인극 '령스'

좋은 의도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남녀가 서로의 감정, 자녀 출산, 환경과 세계 등에
관해 90분간 끊임없이 대화하는 2인극이다.
영국 극작가 던컨 맥밀란이 집필한 작품으로, 두
사람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개인의 선택이 지구와
사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조명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서 두 배우가
연기와 감정, 호흡만으로 일생에 걸친 고민과
희로애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낸다.

연극 '오만과 편견', 음악극 '태일',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서 감각적이고 섬세한 무대를
선보인 박소영이 연출을 맡았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위로에 서툰 '남자'는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을 비롯해 이동하, 성두섭이
연기한다. 삶을 결정하는 순간에 갈등하고
부딪히는 '여자' 역으로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사랑받은 박선영과 이진희가
출연한다.

연극열전 여덟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이다.



국내보다 해외서 더 뜬 ‘에스메 콰르텟’ 데뷔 연주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공연계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6월 클래식 음악계에선 반가운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해외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는 현악사중주단 에스메 콰르텟의 국내 데뷔 무대다.

에스메 콰르텟은 2018년 세계 최고 권위의 현악사중주 콩쿠르인 런던 위그모어홀 국제 콩쿠르에서 ‘깜짝 우승’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사중주단이다.

1979년 타가치 콰르텟이 첫 우승을 차지한 후 하겐 콰르텟(1982), 카잘스 콰르텟(2000), 아르카디아 콰르텟(2012) 등이 트로피를 안았는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성 멤버로만 이뤄진 현악사중주단으로도 첫 우승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에스메 콰르텟은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하유나, 비올리스트 김지원, 첼리스트 허예은이 2016년 창단했다.

위그모어홀 우승 이후 루체른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15회 이상 영국 전역 투어를 진행했다.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페스티벌, 모차르트 페스티벌 등 수많은 유럽 축제에서 연주

회를 열었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의 음반사 ‘알파 클래식스’ 레이블을 통해 인터내셔널 데뷔 음반을 발매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영국의 ‘챔스 힐’ 레이블에서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명성을 얻은 에스메 콰르텟이 6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국내 데뷔 콘서트를 연다.

연주회에서는 진은숙의 현악사중주 ‘파라메타스트링’을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녹음해 첫 앨범에 담은 곡으로, 국내에서 연주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슈만 ‘현악사중주 1번’과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등 유명한 현악사중주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관객들도 이들의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다. 6월 13일에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17일에는 천안예술의전당에서도 연주회를 연다.

공연일정(장소) 6월 9일(롯데콘서트홀)

티켓 4만~6만원

☎ 1544-7744

낭만발레의 진수 국립발레단 '지젤'

국립발레단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신작 '해적'을 대신해 낭만 발레 걸작 '지젤'을 무대에 올린다. 국립발레단은 연습과 의상 준비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신작 '해적'을 내달 무대에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지젤'을 대신 선보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젤은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 고티에의 작품을 원작 삼아 파리오페라단이 1841년 초연한 낭만 발레로, 국립발레단이 여러 차례 선보인 작품이다. 특히 2막에서 24명의 윌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무는 세계 발레사에서 군무의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국립발레단은 휴업 및 재택근무를 끝내고 5월 6일부터 연습을 재개했다.

공연일정(장소) 6월 10~14일(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5천~5만원
☎ 02-580-1300, 1544-1555



화려하고 관능적인 국립오페라단 '마농'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프랑스 대표 작곡가 마스네의 대표작 '마농'을 선보인다.

아베 프레보 소설 '마농 레스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귀족 출신인 데 그리와 기사와 평민 출신 마농의 격정적인 만남과 사랑을 그렸다.

프랑스 연출가 뱅상 부사르가 연출했다. 2016년 리투아니아 오페라 발레 국립극장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이스라엘 국립오페라가 공동 제작한 '마농'의 연출을 맡았던 연출가다.

한국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 본고장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롤 주립극장 수석 지휘자로 활동한 홍석원이 코리아심포니를 지휘한다.

마농 역은 대한민국 대표 소프라노를 넘어 세계 무대가 주목하고 있는 손지혜와 엄진희가 맡아 열연한다. 데 그리와 기사 역은 국윤종과 권재희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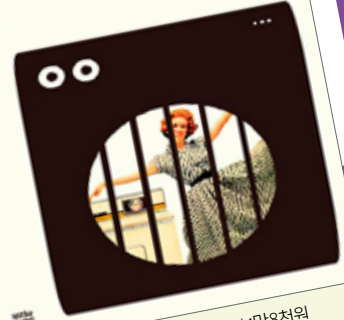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6월 25~28일(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1만~15만원
☎ 1544-1555, 1588-2514

가전제품은 여성들을 가사노동에서 해방했거나 최소한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인식되지만, 사실상 주부들에게 편리함, 편안함, 효율성 대신 더 많은 일을 만들어주었음을 논증한다. 특히 20세기 전반을 통해 미국 가정에는 가전제품이 줄줄이 도입됐는데도 왜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지 더 늘어났는지를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현재와 같은 소비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가전제품이 출현한다 해도 가사노동이 구조적으로 그림자 노동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대부분 주부만의 몫이라면 역사학자 루스 코완이 제기한 '기이한 패러독스'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가사노동 시간이 지난 100년 가운데 60년 동안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1960년대 들어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가전제품 덕분에 아니라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세탁기의 매신

왜 가전제품은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는가

김덕호 지음



김덕호 지음 / 뿌리와이파리 펴냄 / 376쪽 / 1만8천원

떠도는 별

김숨 지음

한강 준엄의 역사를 문학으로 복원하는 탁월한 힘!
한강문학상 대상작품상 수상 작가 김숨 신작 장편

김숨 지음 / 은행나무 펴냄 / 280쪽 / 1만3천500원

1937년 소련 극동지역에 살던 고려인 17만명이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비극을 옮겼다. 동굴 같은 화물칸에 탄 27명에게 하나하나 사연을 부여해 압제적 인물로 지금 우리 앞에 소개함으로써 공감을 극대화한다. 특히 국력이 약할수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여성과 아이들, 노인의 목소리를 통해 슬픔과 박탈감을 전한다. 목격지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살아남은 자들은 황량한 땅을 바라보며 허탈해한다. 하지만 이내 개간을 하고 땅굴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그렇게 다시 삶을 이어간다. 구상부터 탈고까지 총 4년이 걸린 작품으로, 격월간 문학 잡지 'AXT'에 연재했던 소설을 2년 6개월 동안 개고했다.

Alice Munro Collection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앨리스 먼로 지음

앨리스 먼로 지음, 박명단·황금진·서정은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각 396~508쪽 / 각 1만4천~1만5천원

노벨상 수상 작가이자 현대 단편소설의 거장인 앨리스 먼로의 작품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런 어웨이' 세 권으로 구성됐다. 먼로의 첫 소설집인 '행복한 그림자의 춤'에는 모두 15편의 단편이 수록됐다. 불필요한 기교나 수사 없이 담백하지만 감각적인 문장으로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예술로 끌어올린다.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은 먼로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절정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열 번째 소설집이다. '런 어웨이'는 2006년 한국에 소개됐던 소설집 '떠남'을 새로 번역하고 단편 3편을 추가해 완역본으로 만들었다. 인생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을 진찬한 서사로 표현한다.



사이먼 루이스 마크 매슬린 지음, 김아림 옮김/
세종서적 펴냄/ 432쪽/ 2만원

최근 들어 세계 지성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 중 하나가 '인류세'(ANTHROPOCENE)다. 인류에 의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들어 호모 사피엔스 등장 이후의 시기를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신조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인 사이먼 루이스와 마크 매슬린은 인류세라는 시대 구분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언제를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러한 시대가 초래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미래로 이어질 것인지를 탐구한다.



최연 지음/ 가가날 펴냄/ 303쪽/ 1만6천800원

'서울학교', '고을학교', '간도학교'를 운영하며 인문여행을 선도해온 저자가 두 번째로 낸 서울 탐방서. 서울의 법궁 경복궁에서 시작해 임진왜란 이후의 정궁인 창덕궁 일대, 병자호란의 화한이 남아있는 남한산성, 정조의 능행길에 이르기까지 13개의 답사길을 곳곳에 얹힌 역사 이야기와 함께 안내한다. 조선 시대 왕과 왕족들의 무덤, 사냥터, 왕족 소유의 많은 별서와 정자, 행궁 등이 도성에서 100리 안쪽인 교(郊)의 지역에 있었던 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까지 탐방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 인왕, 낙산, 목멱 등 '내사산'과 각각의 산이 품고 있는 마을, 북한산, 관악산, 용마봉(아차산) 등 외곽의 산들과 남한산성 이름도 다룬다. 각 장의 첫머리에 추천 기행 코스를 실었다. 각 코스는 5시간 정도 걷도록 구성했다.



제퍼슨 클라빈 엮음, 오세인 옮김/ 마음산책 펴냄/
440쪽/ 2만2천원

'누벨바그의 대모'로 불린 프랑스 영화감독 아네스 바르다(1928~2019)의 생애와 작품 세계, 예술 철학을 엿보게 하는 인터뷰 20편을 미국 보스턴대 프랑스어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제퍼슨 클라빈이 정리했다. 바르다는 남성 상업 영화 관습을 거부하고 저예산, 즉흥성, 자유로운 촬영 기법을 중시한 누벨바그 선구자다. 첫 작품 '라 푸앵트 쿠르트르의 여행'을 만들 때까지 영화를 거의 보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영화를 잘 몰랐기에 오히려 기존 영화 어법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유년 시절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자란 덕에 자유의 감각을 얻게 됐다는 회고부터 영화감독이자 창작자로서 느끼는 고충과 희열, 외부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며 예술적 자아를 유지하는 힘, 삶과 사람을 향한 애정, 여성운동의 흐름에 대한 견해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진다.